

전북도, 임실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추진한다

북권기금(10억) 활용한 임실군 장애인지원센터 조성…종합경기장 부지에 936㎡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가 북권기금을 활용 해 임실군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전라북도는 임실군 임실을 이도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장애인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착공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임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임실군 장애인들은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센터가 문을 열면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센터는 부지면적 8,296㎡에 지상 1층, 건축면적 936㎡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북권기금 10억 원과 군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내 부에는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4개실,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개소 이후에는 장애인 상담과 교육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여나

갈 계획이다.

사업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부지 매입, 2025년 실시설계 완료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당초 일정보다 조정됐으나, 현재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윤효선 과장은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센터가 지역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교통혼잡 해소 도로개선에 1251억 원 투입한다

호남고속도 확장·상무지구~첨단산단 개설 등 9건 추진

광주시가 도시 거점을 긴밀히 연결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광주광역시시는 2026년도 도로사업 정부 예산 653억원을 확보, 총 1251억 원을 투입해 9건의 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2026년도 도로사업 중 국비 653억원은 지난해보다 283억 원(76.5%) 증가한 것이며, 광주시는 여기에 지방비 598억원을 함께 투입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삼승 정제구간인 동광주 나들목~광산 나들목 구간 호남고속도로에 예산 731억원(국비50%·지방비50%)을 편성해 확장공사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

사를 벌여 기존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넓힐 계획이다.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 개설사업에는 예산 277억원(국비 133억원, 지방비 144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최대 6차로 규모 도로를 개설해 서구 유촌동과 광산구 산월동을 연결, 빗고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심과 산업단지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2~4차로) ▲월전동~무진로(6.25km) 도로 개설 ▲각화동~제2순환도로 진입로 신설 ▲금호동~서광주로 도로개설 ▲서문대로~봉선동 도로(0.76km) 개설 ▲북구 첨단3지구

진입도로(1.3km) 신설 ▲남부산단 진입도로(2.0km) 개설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해 교통난 해소에 주력한다. 광주시는 도로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 간 연결성과 산단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주인석 도로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의 미래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탄소중립백서’를 발간, 30일 공개한다. 그래프·도표·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담았다.

손권일 기자

공시족·취준생 모여!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모집

지난 3년간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역 청년들의 든든한 취업 대응문으로 자리 잡은 ‘정읍시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이 2026년도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한다.

정읍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의 2026년 수강생을 오는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 과정은 수험생들의 수요가 높은 ▲공무원 직강반 ▲공무원 동영상반 ▲공기업(NCS)반 등 총 3개 과정으로 내실 있게 구성됐다. 먼저 공무원 직강반은 국어·영어·한국사 등 공통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과목에 대해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반은 수리 영역, 문제 해결, 의사소통 등 핵심 3과목의 현장 강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원 동영상반을 선택하면 선택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개인별 학습 진도에 맞춘 공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거나 시민의 배우자·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령 기준은 18세부터 45세까지로 폭넓게 설정해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 총정로 93에 위치한 평생학습관 3층 청년취업시험 준비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 등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인재양성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문을 연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올해까지 공무원 36명, 금융권·공공기관 6명 등 총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영임 기자

고창농악 상식 이명훈 무형유산 보유자인정



고창농악 상식 이명훈 현 고창농악보존회 고문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정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고창 농악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명훈 고문은 1990년대 초부터 고창 농악을 배우고 익히며 전승 활동에 헌신해 왔다. 고창 농악 전문교육기관인 고창농악전수관을 운영하며 후학 양성과 체계적인 전수 교육에 힘써왔고, 현재는 (사)고창농악보존회 고문으로 활

동하고 있다.

고창 농악 40년 역사 가운데 무려 35년간 현장을 지켜온 그는 최근 고창 농악 4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고창 농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명훈 고문은 1998년부터 10년에 걸쳐 고창 농악의 기록과 정리에 집중하며 ‘고창 농악’, ‘고창의 마을굿’ 등 총 3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고창 농악의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고창 농악은

현재 연간 수천 명이 전수 교육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농악 전승 모델로 자리잡았다.

공연은 온라인 예매가 개시된 지 몇 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 풍물 동아리 학생들에게 고창 농악 전수는 필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창농악전수관에서는 2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연간 60~80회의 공연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수는 “이명훈 고문의 ‘고창 농악 상식’ 보유자 인정을 통해 고창 농악이 더욱 빛나는 호남의 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고창 농악의 활성화와 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유자 인정은 고창 농악이 앞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형유산으로서 그 맥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창군은 국토교통부가 ‘지역제 안행 특화주책 공모사업’으로 성수면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영임 기자

전국 시 단위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

순천시 자산학 협력, 인재 양성-일자리-지역정책의 선순환 청년정책 모델 호평



순천시는 29일 전국 시 단위 및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순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1명의 인력을 갖춘 청년 전담 조직인 청년정책과를 2023년 1월 신설하고 청년교육국을 2024년 7월 신설했다.

청년의 온·오프라인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및 청년센터 운영, 온라인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오전그린광장 등 정원·생태 자원과 함께 365일 24시간 아동청소년 의료 체계인 달빛어린이병원(3곳) 구축, 지역혁신뇌혈관질환센터 유지 등을 통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치유관광산업을 비롯해 에니메이션·웹툰 등 문화콘텐츠, 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자산학 협력의 지역교육혁신사업(RISE)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순천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의 청년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사업 컨설팅, 정책 자료,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고민해 온 시정 방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순천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청년에 두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친 후 2차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9명,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6년 7월까지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58,292개 시설물의 훼손 및 설치위치, 시인성, 표기 내용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일제조사이시 주소정보 현장 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 KAIS’를 활용해 해당 시설의 이미지, 조사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등록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은 원인 파악 등의 검토를 통해 보수 또는 철거할 예정이다. 단,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친환경 쌀 소비 지원, 농가·외식업체 ‘상생’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 가시적인 성과 거둬

순창군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총 2,415포(20kg 기준, 약 3,600만원 상당)의 공급을 완료했다. 본 사업은 시중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은 무농약 인증 이상 친환경 쌀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포당 최대 1만 5천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에는 원가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요양시설 등 공공급식처를 비롯해 지역 내 일반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까지 폭넓게 확대돼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참여 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순창군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사업 예산을 4,750만원(지원 물량 3,166포)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농촌체험농장과 식품 가공업체까지 넓혀 친환경 쌀 소비



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순창군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사업 예산을 4,750만원(지원 물량 3,166포)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농촌체험농장과 식품 가공업체까지 넓혀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내 업체와 시설은 순창군 친환경농업과 기술보급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승민 기자

용진 설경~두억 군도 개통으로 교통·물류 개선

완주군은 용진을 설경~두억 간 군도 개통을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물류 이동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완주군 군도 13호선으로, 설경-두억 구간은 총연장 1.9km, 폭 8m의 왕복 2차선 도로다. 총 사업비 67억 5,000만 원이 투입돼 2023년 4월 착공 이후 2년 8개월 만인 이달 준공됐다. 이에 따라 협소한 1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군도 개통으로 용진을 상삼리 용교마을에서 신지리 봉동교까지 이어지는 8km 구간의 남북축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국도 17호선 정체 시 우회 기능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물류 수송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전반의 교통 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망 확장과 물류 효율성 증대는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군도 개통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연결성 제고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를 높이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도로 개통 및 확포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이 교육발전특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한일장신대학교와 연계해 가족 마음 성장을 위한 ‘온가족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온가족 힐링캠프는 관내 3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족미술택지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부모 양육코칭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도모했다. 한일장신대학교 학생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34학급, 5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및 개별 심리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상호 기자